

RESEARCH ARTICLE

Suicide, another face of desire

Ji, Miryong¹ · Lee, Pilwon²¹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²Professor,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Education Institute,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자살, 욕망이 지닌 또 다른 얼굴

지미령¹, 이필원²¹한국예술종합학교 학술연구교수, ²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Lee, Pilwon (leepwon@gmail.com)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ature and causes of suicide from a Buddhis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aspect of desire rather than viewing it as a sin.

Methods: The study examines Buddhist texts and interpretat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and vibhava-taṇhā (craving for non-existence), while analyzing various cases of suicide mentioned in Buddhist literature.

Results: The research identifies three distinct forms of suicide in Buddhism: elimination of defilements through realization of non-self, suicide based on self-loathing and wrong view, and suicide as a means to overcome suffering and fulfill desires. The study particularly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bhava-taṇhā and suicidal tendencies.

Conclusion: Suicide in Buddhism is understood not merely as self-destruction but as another manifestation of desire, specifically related to the craving for non-existence. This understanding provides a unique perspective for comprehending and addressing suicide in 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Buddhism, Suicide, Desire, Vibhava-taṇhā, wrong view



OPEN ACCESS

Citation: Ji, Miryong & Lee, Pilwon. Suicide, another face of desire.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2, 89-98.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15>

Received: December 02, 2024

Revised: December 19, 2024

Accepted: December 31, 2024

Copyright: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들어가는 말

지구상 생명체 가운데,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거의 유일하다. 고래 중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래의 지능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¹⁾ 그러나 단순히 지능만 높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생명체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된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빈도수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은 이미 한국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주요 우울 장애, 정신과적 증상이 분명하지 않은 자살사고, 조현병 모두 각 문제의 원인이 ‘생활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²⁾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피하지 못하고 경계선도 유지하지 못하면 신체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 체계가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Leslie S. Greenberg & Sandra C. Paivio, 2009: 88)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거나, 일정정도 이상의 강도로 경험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 제공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회피욕망 혹은 파괴충동이 라고 할 수 있다.³⁾ 또한 이것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주체와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하는 타자와의 관계로도 설명된다. 주체와 타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때, 자살의 충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남경아 2015: 6).

자살은 자살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실존적 문제이지만, 자살을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의 문제가 된다. 실존의 차원과 해석의 차원은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해석의 차원에서는 실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살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해석의 차원이라고 해도, 자살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것과 주변인 또는 관련성이 매우 희박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자살자의 가족의 경험은 해석의 차원과 실존적 차원이 어지럽게 겹쳐짐으로써, 그 삶이 매우 피폐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자살자의 가족을 공동피해자(co-victim) 또는 자살 생존자(suicide-survivor)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이 겪는 고통은 “통상의 죽음을 목격한 가족들이 겪는 애도반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Cleiren & Diekstra, 1995; Ellenbogen & Gratton, 2001; Mitchell, Sakraida, Kim, Bullian & Chiappetta, 2009). 이에 따르면, 이들 유가족은 심리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우울, 불안, 그리고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고(McMenamy, Jordan & Mitchell, 2008; Mitchell et al., 2009) 경우에 따라 혼란스러움과 비탄감을 해소하지 못해 위험한 수준의 자살 사고를 지속하기도 한다(Latham & Prigerson, 2004).”⁴⁾ 따라서 자살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살을 선택한 사람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씻어낼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된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자살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박탈된 채 고스란히 그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실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자살자의 유가족들은 자살한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납득가능한 해석을 통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박혜선, 이종익 2016: 279). 이것은 자기보존의 욕망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처럼 자살은 자살을 선택한 자의 회피욕망 또는 파괴의지와 남겨진 가족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보존의 욕망이 오버랩되어 있는 욕망의 문제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자살을 욕망이 지닌 또 다른 얼굴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욕망과 자살의 관계

전통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행위를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자살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유연한 입장”⁵⁾이다. 이 두 입장 가운데 불교는 어떤 입장에 가까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자에 더 가깝다. 전자는 기독교의 입장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자살을 다룬 선행연구와 관련해서는 김재성(2024)의 논문에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⁶⁾ 선행연구를 통해 보다는 자살에

1) <https://www.youtube.com/watch?v=1NfgR7LZ3sl>. 고래의 자살 현상을 스트랜딩(stranding)현상이라고 한다.

2) 국립정신건강센터(2024: 27). 관련 연구로는 이미영(2021); 김정호, 홍혜영(2016); Howarth et al. (2020); Natalie Thomas, Christopher W Armstrong et al. (2021) 등이 있다.

3) 임정명(2013: 773-774). “라캉의 파괴 ‘의지’는 창조 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젊음의 절정에서 충동의 형태로 발현되는 광휘의 원리로 서의 쾌락원리를 넘어선다(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22-35, 255-62). 인간 삶에 적용시킬 경우 이러한 파괴 의지는 인간이 삶에서 실현하는 모든 실재를 소멸시키는 요인이며, 모든 법을 넘어서는 법으로, 무의 상태에서 또 다른 타자적 존재를 창조하려는 의지이다.” 또 다른 타자적 존재를 창조한다는 의미는 자살을 통해 타자의 상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의지로 필자는 이해하고 싶다.

4) 이경미, 최현실(2015: 656).

5) 마르탱 모네스티에(2015) 전자책을 사용함.

6) 국내연구로는 백도수(2002), 안양규(2002), 이문성(2007), 허남결(2013), 박광준(2013), 해외연구로는 Peter Harvey(2000), 藤田宏達(1988),

대해서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자살은 다른 종교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자살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규정된다.⁷⁾ 그 이유는 피조된 존재로서 인간은 창조주를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의 권한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창조관념 자체가 관념적 허구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론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살을 무조건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아라한이 자살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욕망을 기반으로 한 자살이 문제가 된다. 앞서 김재성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살의 원인으로 단견(斷見), 비존재에 대한 갈애, 분노, 애착, 혐오감, 아라한이 되었다는 착각 등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사건과 욕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 : 단견과 아라한이 되었다는 착각

욕망 : 비존재에 대한 갈애, 분노, 애착, 혐오감

분노는 욕망과 쌍개념의 관계로 이해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의 길에 들어서 욕망이 생겨난 사람에게 만일 감각적 쾌락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자처럼 괴로워한다.(Sn.767G)

욕망은 우리의 감각적 쾌락(kāma)을 근거로 한다. 까마(kāma)는 ‘욕망의 대상’이라고도 번역한다. 우리가 욕망을 품게 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통해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면 괴로워한다(ruppati)는 것이 위 경문의 내용이다. 욕망의 대상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이 파생된다.

투쟁, 논쟁, 비탄, 슬픔과 인색, 자만과 오만, 그리고 중상은 좋아하는 대상에서 일어납니다.(Sn.863ab)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유로 해서 투쟁(kalaha)이나 논쟁(vivāda) 등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당연히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 때 경험하는 것이 투쟁, 논쟁, 슬픔 등을 포함하는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

괴로운 느낌에 닿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비탄해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미혹에 빠지면 분노의 경향이 잠재하게 된다.(MN.III, p.285)

욕망과 분노에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Alexander Wynne(2022) 등의 선행연구의 내용을 1장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다. 김재성의 논문에 따르면, 선행연구 가운데 자살에 대해서 폭 넓게 분류, 연구한 것으로는 백도수와 Peter Harvey를 들 수 있고, 다른 연구들은 경전에 나타난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성은 경전과 율장에 나타난 자살을 단견, 비존재에 대한 갈애, 분노, 애착, 혐오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는 착각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붓다는 명백하게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7) 전상집(2019)의 논문에서는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분석하면서, 기독교적 자살에 대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기독교의 자살에 대한 입장은 “자살행위자에 대한 기독교의 모습은 초대 교회부터 매우 단호했다. 오를레앙 공의회 Konzil von Orléans 533 n. Chr.에서는 자살행위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했으며, 브라가 공의회 Konzil von Braga 563 n. Chr.에서는 자살행위자에 대한 교회의 장례의식이 거부되었다. 더 나아가 톨레도 공의회 Konzil von Toledo 693 n. Chr.에서는 자살시도자들이 파문 Exkommunikation3)에 이르게 된다.”(p.275)로 명확하게 제시된다. 파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자살이 이렇듯 커다란 죄악으로 인식되는 것은 “인간은 하느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p.275)이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을 덧붙인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베르터의 자살은 유부녀를 사랑하는 감정 곧 욕망에 주목한다. 그의 욕망은 정당화될 수 없는 죄로 규정되고,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종교적 신념과 욕망사이에서의 갈등에 주목한다.

애착과 증오라는 생각이 있으면, 탐욕스러운 행동과 사건에 의한 잘못된 행위, 게다가 실제적인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가진 행위가 생겨나고, 도둑질과 간음, 살해와 투쟁 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리게 된다.(안도 오사무, 2010: 114-115)

탐욕스러운 행위, 도둑질, 간음, 살해와 투쟁 등은 공통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파괴적 행위들이 그 행위의 주체에게는 감각적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게 된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는 육체적 느낌과 마음의 느낌에 의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렸는데, 다시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는 두 개의 화살 때문에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 것이다. ...(중략)... 비구들이여,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그는 적의를 품는다. 적의를 품는 까닭에 괴로운 느낌에 대한 분노의 잠재성향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접촉하게 되면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성향이 자리잡게 된다. 그는 이러한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회피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nappajānāti).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회피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성향이 자리잡게 된다.(SN.IV, pp.207-210 ; 인경스님 2012: 129)

위 경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 ① 괴로운 느낌의 발생 → 적의 → 분노의 잠재성향
- ② 괴로운 느낌에 접촉 →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지향 :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
- ③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 → 탐욕의 잠재성향 → 느낌의 발생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 회피를 알지 못함 → 무명의 잠재성향

괴로운 느낌은 자연스럽게 분노로 연결된다. 그리고 괴로움과 분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대한 추구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미 분노와 탐욕에 휩싸인 상태로 욕망의 달콤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무지, 곧 무명의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판단한 달콤함이 자기를 파괴의 길로 이끌고 있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⁸⁾

그럼, 자살은 어떻게 정의될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붓다는 자살에 대해서 위의 경문과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자살을 설명한다.

중생들은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각자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성난 범부는 여러 대상에 폭해서 자신을 죽이거나, 칼로 자신을 죽이고, 미쳐서 독약을 먹고, 밧줄로 자신을 묶어서 죽고 산의 협곡에 떨어져 죽는다. 성난 자는 중생을 죽이고 죽이는 업을 짓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파멸(parābhava)을 부른다.(AN. IV, p.97 ; 대림스님 역 2007: 484)

여기에서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분노와 연결되면 자신을 해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분노는 탐욕과 쌍개념이다. 한편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지를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마음이 어느 곳으로 돌아다녀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지 못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사랑스러우니, 자신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네.(SN.I Mallikāsutta, p.75)

8) SN.I, Purisasutta, p.70에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오로지 스스로에게 생겨나니, 악한 마음을 지닌 자는 스스로를 죽이네.”(전재성 역 주 2006: 266)라는 경문을 참고할 만하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욕망과 결부되면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기꺼이 하는 배경에는 강력한 자의식이 자리한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된 자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자살은 착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모두 정신병자다. _에스키로르

희생자 자신이 희생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죽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 일어나게 된 모든 죽음을 자살이라고 부른다. _알버크

자살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명석한 인간이 행한 행위를 말한다. _아킬 델마
자살은 죽음을 수단이나 결과로 간주하여, 자기 스스로 죽는 행위이다. _드에

자살은 실존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체의 자발적 죽음에서 구하고 발견하는 행동이다. _바에슬러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자멸 행위다. - 세계보건기구(1968년)⁹⁾

위의 여러 정의에서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다. ‘자아’, ‘의지’, ‘의도’, ‘선택’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의식을 가진 자가 특정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가 자살이란 의미가 된다.

3. 무유애, 자살의 욕망

불교의 병인론을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집착(upādāna)’이다. 집착은 오온을 자아라고 여기고, 오온에 대해 욕망하고 애착하는 것을 말한다. 오온과 연관된 그러한 욕망과 애착은 고통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다.(아날랴오 2014: 223 ; MN.I, p.300, DN.II, p.305 등) 집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대한 집착(kāma’upādāna), 견해에 대한 집착(ditth’upādāna),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sīlabbat’upādāna), 자아이론에 대한 집착(attavād’upādāna)이다.¹⁰⁾ 이 네가지 집착 가운데 핵심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자의식이 제거될 때 궁극적으로 괴로움이 종식되는 핵심이다(MN.I, p.51).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원인이자, 탐진치 근본 번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안도 오사무, 2024: 108).

욕망은 자아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 욕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아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욕망은 발생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아에 대해 욕망하고 애착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밀쳐내는 것을 기본 특성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곧 죽음의 거부에서 생겨난 것이다(안도 오사무, 2014: 109). 이것에 대해서 안도 오사무의 견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 유아(인간)는 타고난 무능함이라는 현실적 사실, 즉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과 자신이 ‘누구’라는 감각을 갖게 된다. 즉 동일화와 집착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란 점에서 동일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다만, 동일화는 죽음의 회피에 근거해서 자아가 행동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측면, 즉 세계와 대상을 수용하고, 거두어들인다는 작용에 중점이 놓인 것이다. 그리고 집착은 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측면, 즉 세계와 대상에 사로잡힌, 마음이 끌린 작용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안도 오사무, 2014: 109)

누구나 자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강하다면 당연히 죽음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일이다. 만약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된다면, 자아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욕망으로 왜곡될 수 있다. 그럼 먼저 불교에서 욕망을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전에서는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욕망의 대상에 대한 갈애(kāma-taṇhā, 欲愛), 존재에 대한 갈애(bhava-taṇhā, 有愛), 비존재에 대한 갈애(vibhava-taṇhā, 無有愛)이다. 욕애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서 감각적 쾌락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말한다. 유애는 주로 섬세한 물질의 세계(色界)나 순수한 정신적인 세계(無色界)에 대한 갈망으로,

9) 마르탱 모네스티에(2015)

10) MN.I, Sammādiṭṭhisutta, p.51

영생의 갈망이다. 죽은 후에도 영속하는 영혼과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원주의인 상견(常見)과 관련된다. 이것을 간단히 내세의 욕망을 바라는 욕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유애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허무주의, 단견(斷見)이라는 사견(邪見)에서 나온 갈망이다. 자아와 욕체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유물론에 근거하여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여,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비관하여 파괴하고, 죽고자하는 갈망을 말한다. 간단히 존재가 없는 허무를 꿈꾸는 욕구라고도 설명된다.¹¹⁾

세 가지 욕망의 핵심은 갈애(taṇhā)이다. 갈애란 충족되지도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욕망을 말한다. 이것을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해서 갈애(渴愛)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 세 욕망 곧 갈애 가운데 마지막 무유애를 자살과 관련지을 수 있다.¹²⁾ 이들 세 가지 욕망은 기본적으로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 무유애만 사건이 아니다. 영원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건이며, 욕망의 대상을 갈구하며 그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 역시 사건의 작용이다. 무유애를 유물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물론자들이 모두 자살을 꿈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한 예로 SN.III, Antasutta를 들 수 있다. 이 경전에서는 세 가지 욕망을 개체의 발생(sakkāyasamudaya)으로 설명한다. 삭까야(sakkāya)는 한역으로는 유신(有身)으로 번역되는 말로, 오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¹³⁾ 따라서 무유애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단멸론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존재를 끝내고 삶을 리셋시키고자 하는 상주론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죽은 뒤의 다른 삶은 지금보다 는 낫길 바라며 선택하는 것이 보통의 자살자의 바람이라면, 자살의 측면에서의 무유애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살과 관련하여 무유애를 단멸론 또는 상주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만약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면 자살을 선택할 수 없다.¹⁴⁾ 죽음으로서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사라지거나, 고통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두려움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약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내가 현재 경험하는 고통이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선택은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 욕망을 자살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자. 욕애와 유애는 불교 세계관에 따르면 각 욕계에 관련된 욕망,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에 관련된 욕망이다. 무유애는 단멸론의 해석에 따르면 소멸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상주론의 해석이 가능하면 윤회를 통한 재생에 대한 욕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유애는 현재의 삶을 종식시키으로써,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갈망이라는 측면과 새로운 형태의 삶을 추구하는 갈망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욕망의 종류와 생존의 영역 그리고 자살의 가능성

욕망의 종류	생존의 영역	특성
욕애(kāma-taṇhā)	욕계(kāma-dhātu)	현재의 삶에서 욕망을 추구하면 사는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 자살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
유애(bhava-taṇhā)	색계(rūpa-dhātu) 무색계(arūpa-dhātu)	현재의 욕망 위주의 삶보다는 절제와 수행을 통해 더 나은 내세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 자살의 가능성이 있음
무유애(vibhava-taṇhā)	소멸 새로운 생존(욕계, 색계, 무색계)	현재의 고통에 초점을 두고 고통의 소멸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고통없는 삶을 획득하는 수단의 의미가 강함 자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11) 이 세 가지 욕망에 대한 설명은 주로 김재성(2024: 53)의 내용을 기반으로, 안도 오사무(2024: 47)의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김재성의 설명은 주석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실제 경전에서는 이 세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고 있지 않다.

12) 김재성은 이와 관련하여 杉本卓洲(1999)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초기불교 연구자들의 무유애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며, 본인은 무유애를 비존재, 생명의 정지, 절멸에 대한 갈애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藤田宏達(1988) 또한 무유애를 자살과 연관짓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김재성 2024: 53 각주 30 참조)

13) PED., s.v. sakkāya.

14)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있다. 서장원(2022)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6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서장원은 자살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인 Joiner(2005)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Joiner는 자살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곧 소속욕구의 좌절, 주변에 짐이 된다는 인식, 그리고 자살실행력(capability for suicide)이다. 자살실행력이란 실제로 자살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부재와 통증 감내력으로 구성된다.(서장원 2022: 986)

위 표에서 자살이 이루어지는 생존의 영역은 욕계에서의 일이다. 욕애가 강하면 자살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욕계에서 유애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자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무유애에 대한 갈망이 크다면 자살의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 불교에서 바라보는 자살의 이중적 관점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불교는 자살을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물론 자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자살이란 자기 파괴라는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강력한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불교에서 수행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 이것은 형태상으로 볼 때는 자살이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자살이 아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 볼 때는 자살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말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하나의 관점만을 말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는 형태상으로 볼 때의 관점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편의상 a, b, c유형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a유형]

나에게 죽음의 공포는 없다. 또한 삶에 대한 애착도 없다. 확실하게 알아 안정되어 있다. 나는 몸을 버릴 것이다.(Th, 20G)

이 계승은 아지따(Ajita)장로의 계승이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수행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 애착 또한 갖고 있지 않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관념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으로서, 그야말로 평온 그 자체인 상태를 노래한 것이다.

[b유형]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서로 서로 목숨을 끊어주고, 사이비 수행자 미갈란디까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벗이여, 우리의 목숨을 끊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우들과 옷들이 그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 중략 ...

이와 같이 ‘이여, 우리의 목숨을 끊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우들과 옷들이 그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청정한 믿음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더욱 더 청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오히려,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신으로 이끌고, 이미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어떤 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¹⁵⁾

이 내용은 부정관을 닦은 비구들이, 육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자살을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수행의 한 방법인 부정관은 시체가 부패해 가는 과정을 실제 관찰하면서 몸에 대한 애착, 나아가 애욕을 끊어가는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이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갖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육체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자살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자살을 하지 않은 비구들에게 위와 같이 질책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a유형]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수행을 잘못된 결과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유형]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왓티시에 어떤 부인이 친척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왓티시에 있는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저 친척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우리는 차라리 다음 세상에 함께 지냅시다.’라고 말하고, 아내를 칼로 두 동강이를 내고 자신도 자결했습니다.¹⁶⁾

15) Vin.III, p.70; 전재성 역주(2015: 598). 김재성(2024: 60).

16) MN.III, Piyajātikasutta, p.109; 전재성 역주(2009: 989).

이 경문의 내용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극복 가능한 시련이라면, 아마도 저 부부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에서 허락되지 않는 행복을 내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상 a, b, c의 자살의 세 유형에서 a유형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자살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그것은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 내용적으로 자살은 b와 c유형이다. b는 자기 혐오감을 인연으로 한 사건 때문에 발생한 자살이고, c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한 자살이다.

<표 2> 자살의 형태상 유형과 내용에 따른 분류

자살의 형태상 유형	내용적 측면에서 자살	내용
a	×	무아의 실현을 통한 마지막 번뇌의 제거
b	○	자기혐오감을 인연으로 한 사건으로 선택한 자살
c	○	괴로움을 극복하고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자살

자살에 대한 불교의 이중적 관점이란 a와 b·c를 말한다. a유형의 경우는 형태상으로는 자살이지만, 이것은 내용적으로 무아를 실현하고 깨달음을 성취한 수행자의 선택이기에 어떤 문제도 없다. 말하자면 자살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거나 내세에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한 잘못된 견해와는 무관한 한 존재의 자연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수명의 포기(ossattho āyusañkhāro)’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에 반해 b와 c는 각각 강력한 자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건과 욕망을 인연으로 발생한 자살의 전형적인 예이다. 불교에서 비판하는 자살은 b와 c유형의 자살이다.

5. 결론

불교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대상으로부터의 떠남(離欲)을 통해, 궁극의 행복 곧 해탈,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체험적으로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의식을 타파하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한 수행자가 선택한 수명의 포기는 깨달음이 표현되는 한 형태일 뿐이다. 곧 체험적 해탈의 표현 양식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잘못된 사건이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한 자기 목숨의 파괴는 긍정도 인정도 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 욕망 가운데 무유애는 자살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욕망으로 분류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유애는 단순히 유물론적 견해에 기반한 단견 혹은 사건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극복되지 않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그 괴로움이 없는 이상적인 삶을 갈구하는 욕망의 적극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자살이란 극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행복을 기원하며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의 표현인 것이다.

불교에서 자살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욕망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기 때문이다. 욕망에 눈이 가리워지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관념의 세계만이 남고, 실제의 세계는 사라져 버린다. 현실에서 괴리된 채, 관념속에 갇혀 버린 사람은 자기파괴라는 폭력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그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자기 욕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근원을 통찰하게 된다면 자살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교 수행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체계로서,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실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자살이 갖는 문제점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자살 생존자’라고 불리는 유가족들의 문제이다. 자살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자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마도 자살자의 유가족들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 다른 기회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7) DN.II, Parinibbānasutta, p.118.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자살을 욕망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자살은 자아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무유애(無有愛)라는 욕망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논문은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깨달음을 성취한 수행자의 경우(a유형), 둘째는 수행 과정의 잘못된 견해로 인한 자살(b유형), 셋째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자살(c유형)이다. 불교는 a 유형의 경우 형태상으로는 자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아의 실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b와 c유형은 자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건과 욕망의 표현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무유애는 단순한 단멸론적 견해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갈구하는 욕망의 적극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자살의 문제는 자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불교는 욕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찰을 통해 자살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시한다.

주제어

불교, 자살, 욕망, 무유애, 사건(잘못된 견해)

약어

DN. Dīgha-nikāya, PTS

MN. Majjhima-nikāya, PTS

SN. Saṃyutta-nikāya, PTS

Sn. Suttanipāta, PTS

Vin. Vinaya, PTS

PED. Pāli-English Dictionary, PTS

참고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2024).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 보고서.
- 김재성(2024). 초기불교 문헌에 나타난 자살-사례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60.
- 김정호, 홍혜영(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과 외적속박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 남경아(2015). 한국 사회의 자살 충동과 저널치료 - 라캉의 죽음충동 개념 중심으로 -. 철학논총, 79(1).
- 대림스님 역(2007). 앙굿따라니까야4,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박혜선, 이종익(2016). 자살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2.
- 서장원(2022).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 분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6.
- 안도 오사무(2024). 심리치료와 불교 (인경스님 · 이필원 옮김, 제7쇄), 서울: 불광출판사.
- 이경미, 최현실(2015). 자살자 유가족의 애도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3(4).
- 이미영(2021).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조절효과로. 청소년문화포럼, 66.
- 임정명(2013). 파괴 의지로서의 죽음 본능 탐색—〈실비아〉와 『종 향아리』의 실비아 플라스와 에스터 그린우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4(3).
- 전재성 역주(2006). 상윳따니까야3,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전재성 역주(2009). 맛지마니까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Howarth et al. (2020). found that stressful life events were associated with a 37% higher odds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s. J Affect Disord, 266, 731-742.
- Natalie Thomas, Christopher W Armstrong et al. (2021). A network meta-analysis of stress mediators in suicide behaviour. Front Neuroendocrinol, 63.

기묘한 밤. 영어를 배워 최초로 인간과 대화했던 돌고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유는? [사건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1NfgR7LZ3sI>>.